

# 김승옥 소설에 나타난 여성인식 연구

— 현상학적인 장소개념을 중심으로 —

류진아(신라대)

## 〈목 차〉

- |                       |                  |
|-----------------------|------------------|
| 1. 들어가는 말             | 3. 남성에게 여성은 무엇인가 |
| 2. 김승옥 소설 속에 나타나는 여성상 | 4. 나오는 말         |

## 1. 들어가는 말

장소는 지리학적인 개념이자 공간적인 개념이다. 그리고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생활세계가 직접 경험되는 곳이며, 의미, 실재사물, 계속적인 활동들로 그 내부를 구성한다. 즉 장소란 육체를 가진 인간이 거주하는 공간이며, 이 공간을 통해서 인간은 세계와 관계를 맺는다.

철학자 하이데거는 ‘장소’가 인간의 자유와 실재성의 깊이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인간을 위치시키며, 철학적 측면에서 본다면 인간이 세계를 경험하는 심오하고도 복잡한 측면을 장소라고 표현하고 있다.<sup>1)</sup>

인간을 장소와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 없다. 그 장소가 어떤 장소가 되었건 인간은 장소를 거점으로 생활하며 그곳에서 소통한다. 인간이 보낸 시간들이

1) 에드워드 렐프, 김덕현·김현주·심승희, 『장소와 장소상실』, 논형, 2005년, 25면에서 재인용.

장소에 대한 기억과 함께 과거의 지난 추억이 되고 그러한 것들을 통해 그 장소에 정체성이 부여된다. 이렇게 부여된 장소에 대한 정체성 즉 장소감 (sense place)<sup>2)</sup>은 개인마다 다르게 인식된다.

남성에게 있어 집이라는 장소는 편안하고 안락한 휴식의 장소인 반면, 여성에게는 외부세계와 분리된 또 다른 일터에 불과하다. 그리고 집은 어떤 이에게는 위험한 바깥 세계와 구별된 안전한 곳, 언제나 돌아가 쉬고 싶은 곳이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위험한 바깥보다 더 위험한 장소가 될 수도 있다. 그것은 개인의 경험에 의해 집이라는 장소의 정체성이 규정되기 때문인데, 과거의 시간들과 함께 좋은 기억들이 그 장소를 채우고 있으면 그곳은 언제나 돌아가고 싶은 곳으로 인식되는 반면, 좋지 않은 기억으로 채워지면 그곳은 영원히 돌아가고 싶지 않은, 벗어나고 싶은 곳이 된다. 그래서 장소에 대한 인식은 지극히 주관적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장소적 개념은 비단 공간을 소유하고 있을 때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사람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어떤 곳이 있어야 하며, 사람은 그 안에서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 의미와 행위 그리고 맥락이 융합된 것으로 장소를 생각한다면 굳이 넓은 공간을 소유하지 않아도 그것은 장소가 된다. 장소를 그 세부적인 내용으로만 생각한다면 엄청나게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우리의 장소 경험은 직접적이고, 완전하며 대개 무의식적이다.<sup>3)</sup>

장소에 대한 여러 정의에서 볼 때 장소는 인간이 경험하는 하나의 공간이다. 인간은 그것을 무의식적으로 경험하며 그 무의식적 경험 속에서 장소의 정체성이 생겨난다. 그런 이유로 개인마다 장소에 대한 정체성이 각기 다르게 정의된다. 또한 개인이 공간을 가지고 있는 소유형식도 각각 다르다.

불노는 우리의 몸을 공간을 인식하는 도구로 보고, 몸을 공간을 체험하는 주체의 조직에 속한다고 말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몸은 그 자체로 공간, 즉 개인 공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몸 자체가 우리를 둘러싼 공간의 일부로 보

2) 랠프는 장소감(sense place)에 대해, 장소-인간의 관계에서 인간이 장소를 어떻게 자각하고 경험하고 의미화 하는가를 말하는 것으로 인간에 초점을 둔 개념이라고 했다. 에드워드 랠프, 위의 책, 309면.

3) 에드워드 랠프, 앞의 책, 110면.

았다.<sup>4)</sup>

이 연구에서는 김승옥의 단편 소설 『무진기행』, 『야행(夜行)』, 『서울의 달빛 0장』의 분석을 통해, 작품 속에서 여성이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지를 장소의 개념을 통해 살펴보려고 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새롭게 조명되는 여성에 대한 인식은 남성 작가 김승옥의 여성에 대한 인식을 넘어 소설을 통해 독자에게 전달됨으로써 사회적으로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그것이 곧 사회의 공통적 인식으로 고정화 될 수 있다. 작품이 나온 지 50여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도 이 문제가 중요하게 언급되는 것은 남성들의 여성에 대한 인식이 그때와 비교했을 때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위의 세 작품을 기본 텍스트로 선정한 이유는 『무진기행』, 『야행(夜行)』은 김승옥 소설에 있어 김승옥이라는 이름을 세상에 널리 알린 작품임과 동시에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연구가 되고 있다. 즉 두 작품은 그만큼 김승옥을 대표하는 작품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의 달빛 0장』 또한 남성 주인공의 여성에 대한 인식이 비교적 잘 드러나고 있는 작품이다.

## 2. 김승옥 소설 속에 나타나는 여성상

김승옥은 『생명연습』으로 한국일보 신춘문예를 통해 문단에 데뷔했다. 그의 16편의 작품 가운데 15편의 작품이 1960년대 발표되었다. 1960년 그는 당시 문학의 흐름이었던 반공 이데올로기를 과감히 벗어던지고 자유에의 동경과 ‘자신의 세계’를 찾아 나서는 주인공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특히 그의 소설 속에 등장하는 여성들은 남성 주인공들에 의해 성적 대상으로 묘사됨은 물론 자유를 찾아 혹은 개인적 실존의 문제로 방황하는 남성 주인공들이 머무는 대상으로 그려지고 있다.

김승옥 소설에 있어 두드러지는 특징은 성(性)을 매개로한 개인의 삶의 논리와 그로 말미암은 권력구도가 선명하게 드러난다는 점이다. 그의 소설은 기본적으로 ‘사랑을 부정한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사랑을 느끼지만 믿지는 않

4) 오토 프리드리히 볼노, 이기숙 옮김, 『인간과 공간』, 에코리브로, 2011, 370-376 참조.

는다. 그렇기 때문에 연에는 폭력적 남성성으로, 여성성의 소외로 제시되며, 여성을 타자화 대상화 한다.<sup>5)</sup> 특히 여성에 대한 남성 주인공의 인식은 여성을 삶의 동반자나 삶의 주체로 바라보기 보다는 남성의 성적 대상이자 주변인물로 그리고 있다. 여성들은 소설 속에서 비중 있는 인물로 등장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여성 인물 스스로가 주체가 되기보다는 남성 주인공에 의해 서술된다는 점에서 철저히 타자화 되고 대상화 된다.

여성이 주요인물로 등장하는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무진기행』, 『야행(夜行)』, 『서울의 달빛 O장』을 들 수 있다. 이 작품들은 1960-70년대 중산층 여성의 성적욕망을 문학 안으로 끌어들이는 대표적인 작품이라 할 수 있다.<sup>6)</sup> 『야행(夜行)』, 『서울의 달빛 O장』에서 김승옥은 ‘여성의 성을 관리 통제할 수 있다는 믿음이 깨지면서 발생하는 남성섹슈얼리티의 강박적인 특성<sup>7)</sup>을 세련된 방식으로 드러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승옥의 작품 세계 속에서 이러한 중산층 여성의 성적 욕망의 문제를 다룬 작품들이 문학적 쟁점으로 부각되지 못하고 대체로 논의의 중심에서 배제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sup>8)</sup>

김승옥의 소설에서 여성은 하위주체로서 자본주의 근대에 희생당하거나 침묵하는 타자에 가깝다. 이러한 이미지 형상을 통해 그의 소설 속에서 여성들의 이미지는 손상되어 나타난다. 김승옥의 소설에 등장하는 여성들은 작가에 의해 가공되어진 인물들이다. 그들이 성적 대상으로 그려지든 비뚤어진 성적 주체로 그려지든 그것은 김승옥의 의도에 의해 탄생된 이미지들이다.

이 연구에서는 여성 인물이 비중 있게 묘사되고 있는 『무진기행』, 『야행(夜行)』, 『서울의 달빛 O장』을 통해 여성의 이미지가 남성들에게 있어 어떤 장소적 의미를 가지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5) 김복순, 『1960년대 소설의 연애전유 양상과 젠더』, 『대중서사연구』제19호, 대중서사학회, 2008, 22-23면.

6) 광상순, 『김승옥 단편소설의 여성인물 연구』, 『한국문학이론과 비평』제49집 14권 4호,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10, 144면.

7) 차미령, 『김승옥 소설의 탈식민주의적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논문, 2002, 2면.

8) 광상순, 위의 글, 145면.

### 3. 남성에게 여성은 무엇인가

#### 3.1. 삶의 도피처

『무진기행』은 작가 김승옥을 세상에 널리 알리는데 크게 기여한 작품이다. 이 작품은 1960년대를 뒤덮고 있던 반공과 암울을 벗어던지고 새로운 감수성으로 한국소설의 기원을 개척했다고 평가되고 있다.

김승옥의 초기 작품들은 대체로 본격적인 한글세대의 출현을 알리는 시발점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특히 『무진기행』은 1960년대 전반 우리사회의 속물 의식 혹은 소시민 의식을 보여주는 작품으로 주목의 대상이 되었다.<sup>9)</sup>

『무진기행』에 대한 해석은 대체로 두 가지 요소에 집중되어 있는데, 하나는 ‘무진’이라는 장소에 대한 것과 또 다른 하나는 ‘하인숙’이라는 인물의 성격에 집중되어 있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남성 주인공에게 있어 여성 등장인물인 하인숙이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지에 대해 집중할 것이다.

남자 주인공인 윤희중은 서울에서 제약회사를 다니다 장인어른과 아내의 권유로 일주일 휴가를 얻어 고향인 ‘무진’으로 향한다. 그에게 있어 무진은 고향이긴 하지만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 그 곳은 향수 어린 고향이라기보다는 자신이 서울생활에서 실패를 경험할 때마다 도망가는 피난처 역할을 하는 곳이다. 하지만 지금 그는 서울에 터를 잡고 있으며, 자신의 안식처가 되어주는 곳은 아내가 있는 집이다. 소설 속에 자신의 집에 대해 묘사한 부분은 없지만, 현재의 아내에 대한 묘사에서 아내를 자신의 안식처로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 안식처는 사람들이 보통의 안식처에서 느끼는 푸근함 보다는 전쟁터와 같은 바깥세상으로부터 벗어나 잠시 그 세상을 잊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 그의 아내 역시 험한 바깥세상에서 집으로 험레벌떡 뛰어 들어올 때 그를 지켜주는 안식처로써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안식처가 지친 심신의 피로를 내려놓고 편안히 쉴 수 있는 공간이라면, 도피처는 위험이나 괴롭힘을 피해 잠시 몸을 의탁하는 곳으로 도피처에서는 언젠가는 떠나야 한다는 생각으로 인해 여전히 불안함을 안고 있을 수밖에 없다.

9) 김경수, 『2005년의 무진기행』, 『작가세계』, 2005년 여름호, 세계사, 2005년, 57-58면.

사년 전 희중의 나이 스물아홉에 그와 사귀던 희가 그만 그의 곁에서 달아나버리고 지금의 아내가 남편과 사별하게 되면서 둘은 부부의 연을 맺게 된다. 윤희중은 자신이 사랑하던 희가 떠나버린 쓰라린 지난 아픔에 대한 도피처로 지금의 아내를 선택한 것이다.

“당신 안색이 아주 나빠져서 큰일 났어요. 어머님 산소에 다녀온다는 핑계를 대고 무진에 며칠 동안 계시다 오세요. 주주총회에서의 일은 아버지하고 다 꾸며 놓을게요. 당신은 오랜만에 신선한 공기를 쐬고 그리고 돌아와 보면 대회 생계약회사의 전무님이 되어 있을 게 아니에요?”라고, 며칠 전날 밤, 아내가 내 파자마 깃을 손가락으로 만지작거리며 나에게 진심에서 나온 권유를 했을 때 가기 싫은 심부름을 억지로 갈 때 아이들이 불평을 하듯 내가 몇 마디 입안엿소리로 투덜댄 것도 .....<sup>10)</sup>

위의 글에서 보면 희중은 마치 어린아이처럼 아내의 권유를 투덜대면서도 결국 받아들이고 무진행 버스에 오른다. ‘주주총회에서의 일은 아버지와 다 꾸며 놓을 테니 잠깐 무진으로 피신을 하라’는 아내는 그에게 있어 험한 바깥 세상으로부터 그를 지켜주는 보호자요, 안식처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게 아내가 말한 보호의 약속 아래 무진에 도착한 그는 이모 댁에서 머물며 한가로운 시간을 보낸다. 어느 날 무진중학교 몇 년 후배인 박의 방문을 받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 학창 시절 친하게 지내던 조의 소식을 듣고 그의 집으로 향한다. 조의 집에서 반갑게 해후한 그들은 응접실에 미리 와 있던 손님들과 함께 저녁시간을 보낸다. 그곳에서 그는 자신의 모교에 음악선생으로 있는 하인숙과 첫 대면을 하게 된다.

그들은 밤이 깊어서야 조의 집을 나서는데, 함께 집을 나섰던 사람들이 하나 둘 도중에서 헤어져가고 결국 하인숙과 윤희중은 자연스럽게 동행을 하게 된다. 하인숙을 집 앞까지 배려해주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다 인숙의 집 앞에 다다른 후 그들은 내일 다시 만날 약속을 정하고 헤어진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그들은 첫 대면식을 하는 사람들답지 않게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

10) 김승옥, 『무진기행』, 『무진기행』, 문학동네, 2011, 161-162면.

나간다. 그렇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인숙이 희중에게 자신을 하선생이 아닌 인숙으로 불러 달라고 부탁을 하고 인숙은 희중을 오빠라고 부르게 되면서부터다. 잠시 전쟁터와 같은 서울에서의 탈출을 위해 고향을 찾은 희중은 그곳에서 자신을 스스로없이 대하는 모교에서 음악을 가르치는 선생 인숙에게 ‘고향’이라는 장소에서 느끼는 편안함과 닮은 감정을 느끼며 자신을 무장해제한다. 인숙은 ‘고향’과 ‘모교’라는 단어와 합치되면서 희중에게 낯설음보다는 친근함과 편안함을 안겨주는 존재다.

인숙은 허물없이 희중을 대하며 자신을 서울로 데리고 가 달라고 그를 조른다. 희중이 잠깐 피해온 서울, 그곳을 인숙은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것이다. 희중에게 서울은 인숙의 경우와는 달리 전쟁터라는 것이 그와 인숙의 대화에 잘 나타나고 있다.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렇지만 지금 살아선 가정을 갖는다고 해도 미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정말 맘에 드는 남자가 있다고 해도 여기서 살기 싫어요. 전 그 남자에게 여기서 도망하자고 조를 거예요.”

“그렇지만 내 경험으로는 서울에서의 생활이 반드시 좋지도 않더군요. 책임, 책임뿐입니다.” 11)

위의 글을 보면, 희중이 서울이라는 팍팍한 도시에서 선택한 집과 아내라는 안식처로서의 장소도 제 역할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고 있다. ‘책임, 책임뿐입니다’라는 그의 말에서 앞에서 연구자가 안식처라고 했던 아내가 희중에게 전무라는 이름의 직책을 안기면서 무거운 책임을 지울 것이라는 걸 안 그는 더 이상 아내를 안식처로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그에게는 또 다른 전쟁터와 같은 아내로부터 달아나 잠깐이나마 자신의 몸과 마음을 의탁할 수 있는 도피처가 필요할 것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그가 선택한 도피처는 하인숙이라는 인물로 낙점이 된다.

다음 날 이른 아침 어머니의 산소에 다녀오는 길에 읍내 술집에서 일하던 여자가 간밤에 자살한 채로 넷물에 얹어져 있는 시신을 보게 된다. 그는 삶에 찌든 무진의 남자들이 도피처로 택했을 그 여자의 시신을 보면서 자신도 모

11) 김승욱, 위의 책, 179면.

르게 정욕을 느낀다. 아마 그녀를 찾아가 위안을 받았던 많은 남자들처럼 그도 잠시 지친 삶을 내려놓고 그녀에게로 도망가고 싶은 충동을 느꼈는지도 모른다.

이러한 도피의 충동은 오후에 인숙을 만나면서 실천에 옮겨지는데, 인숙을 만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이후 안식을 얻으려고 잠시 머물렀던 집을 찾는다. 인숙과의 육체적인 결합은 그를 서울에서 자신에게 책임만을 지우려고 하는 견고한 허울뿐인 안식처로부터의 탈출을 의미한다. 인숙은 그에게 새로운 도피처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두 사람의 육체적 결합으로 인해 그는 새로운 도피처를 얻게 된다. 아내가 있는 그의 일탈적인 행동은 일탈로 그려지는 것이 아니라 단지 힘겨운 삶과 책임에서 도망 나와 잠시 쉴 곳을 찾아 헤매는 사람으로 묘사된다.

“세상에 착한 사람이 있을까?” 나는 방으로 불어오는 해풍 대문에 불이 꺼져버린 담배에 다시 불을 붙이며 말했다. “질 나무라시는 거죠? 착하게 보여주려는 마음이 없으면 아무도 착하지 않을 거예요.” 나는 우리가 불교도라고 생각했다. “선생님은 착한 분이세요?” “인숙이가 믿어주는 한.”<sup>12)</sup>

희중은 그들을 불교도라고 생각한다고 말한다. 그는 인숙과 자신을 방황하는 중생으로, 그래서 부처님의 가피를 입듯 그들도 현실의 지옥으로부터 탈출을 갈망하는 건지도 모른다. 희중의 일탈은 고된 삶의 전쟁터로부터의 탈출이었고, 인숙은 기꺼이 그의 도피처가 되어준다. 그래서 그 둘은 상처 받은 자와 그것을 품어주는 자로, 결과적으로 그들은 나쁜 사람이 아닌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다음 날 늦은 잠에서 깬 희중은 아내에게서 온 긴급 전보를 받는다. 그는 전보를 통해 아내와 대면한다. 서울이라는 생활터전으로, 가정이라는 곳으로 다시 돌아가야 하는 희중은 도피처인 무진에서 인숙과 있었던 일들을 뒤로하고 전쟁터로 복귀할 것을 아내와 약속한다. 그것은 또 다시 아내에게로의 도피를 의미하지만 희중이 바라는 진정한 안식처가 되지 못하는 아내는 그에게 ‘내게 주어진 한정된 책임 속에서만 살기로’ 약속하길 원한다. 그는 거기에 새

12) 김승옥, 앞의 책, 190면.

끼손가락을 걸며 약속한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은 아내와의 직접대면에서 이루어지는 약속이 아닌 자신의 상상 속에서 이루어지는 대면이며 약속이다. 서울로의 복귀는 미리 예정된 것이지만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그의 약속에는 속임수가 감춰져 있다. 그는 무진을 떠나며 인숙에게 편지를 쓴다.

갑자기 떠나게 되었습니다.....간단히 쓰겠습니다. 사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저 자신이기 때문에 적어도 제가 어렵듯이나마 사랑하고 있는 옛날의 저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믿어주십시오. 그리고 서울에서 준비가 되는대로 소식 드리면 당신은 무진을 떠나서 제게 와주십시오. 우리는 아마 행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sup>13)</sup>

하지만 이렇게 쓴 편지를 그는 결국 찢어버리고 만다. 인숙은 그에게 있어 잠깐의 도피처였을 뿐 현재 그의 아내처럼 영원한 도피처가 되지는 못한다. 그런 이유로 무진에 머무는 동안 잠깐의 도피처였던 인숙에 대한 미안함 때문인지, 아니면 자신의 무책임한 행동 때문인지, 그는 무진을 떠나며 심한 부끄러움을 느낀다.

『무진기행』에서 작가에 의해 가공된 인물인 희중의 아내는 남자 주인공이 서울이라는 삶의 전쟁터에서 돌아와 쉴 수 있는 안식처이며, 인숙 또한 책임의 무게로 인해 편안히 숨 쉴 수 없는 견고한 집과 아내라는 또 다른 삶의 전쟁터로부터 잠시 일탈을 꿈꿀 수 있는 일탈의 장소, 즉 삶의 도피처로 그려지고 있다.

### 3.2. 오염된 장소

지금까지 『야행』은 하위주체인 여성에 대한 사회적 정치적 억압의 이중구조가 환유하는 경제화된 개인의 면모, 더 나아가서는 병영사회를 환기하는 침묵과 은폐된 발언지점을 고려하기 보다는 ‘여성주체’의 왜곡된 면모‘로 비판되거나<sup>14)</sup> ‘분열된 만보객’<sup>15)</sup> 등으로 독해되는 수준이었다.

13) 김승옥, 위의 책, 194면.

작가는 여성주인공을 등장시켜 그녀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 그녀의 심리적 상황을 밤거리를 배회하는 장면을 통해 잘 그려내고 있다. 또한 현실의 상황과 맞부딪치는 주인공의 내면의 갈등을 현주의 생각을 통해 잘 묘사하고 있는 글이다. 김승옥의 다른 소설들에서 여성은 타자화 되고 주변인물로 그려진 반면, 현주는 남성 위주의 사회적 폭력과 억압에서 자유롭지 않은 개인으로 사회적 주도권을 가지지 못한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소설 속에서는 하위주체의 관점에서 남성적 사회가 가진 면모를 바라보는 주체로 등장한다. 하지만 이러한 주체의 시선은 남성이부장제사회의 통념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어 여성의 시선이지만 이것을 온전한 여성 주체의 시선으로 보기보다는 남성이부장제사회에 의해 만들어진 남성적 관점을 지닌 주체라고 할 수 있다.

소설 속 주인공은 강간이라는 폭력을 경험한 여성으로 지난 경험에 대한 공포와 불안으로 밤거리를 배회한다. 그런데 작가는 여성 주인공의 성폭력의 경험을 개인적인 변화의 전환점으로 삼고 있으며, 그 개인적 전환은 병든 자아의 회복과 자신의 삶에 대한 주체성을 견고히 다지기 보다는 성적 욕망에 사로잡혀 밤거리를 배회하는 여자로 그림으로써 강간범에게 면죄부를 부여하고 있다.

은행에 근무하는 고학력 여성인 현주는 고향으로 휴가를 갔다가 서울로 돌아온 날 같은 은행에 근무하는 동거 중인 남자에게 자신이 돌아왔음을 알리고 집으로 향한다. 여름 띄어벌 아래 육교를 오르던 중 현주는 낯선 남자에게 팔목을 잡힌 채 영문도 모르고 어딘가로 끌려간다.

현주는 마지막 층계를 오르고 있는 중이었다. 그때였다. 낯선 사내의 억센 손이 그 여자의 팔꿈치 근처를 움켜쥔 것은. 한 번도 본 기억이 없는 사내였다. …… 사내는 약간 비대하였고 햇빛에 그을려 갈색인 얼굴에 땀을 뻘뻘 흘리고 있었다. …… “왜 그러세요?” 현주는 사내의 손아귀에서 팔을 빼려고 했다. …그러나 사내는 손을 떼지 않았다. “조용히 드릴 얘기가 있습니다. 아무 말씀 마시고

14) 이상경, 『한국근대여성문학사론』, 소명출판, 2002, 335면.

15) 신형기, 『분열된 만보객』, 『상허학보』제11집, 상허학회, 2003년, 199-225면(유입하, 「달헌 일상성과 해방의지」, 『겨레어문학』제33집, 겨레어문학회, 2004년, 264면에서 재인용.)

절 따라와 주세요.” 말하고 나서 사내는 현주의 팔꿈치를 잡고 있던 손을 아래로 미끄러 내려 손목을 힘주어 잡았다.<sup>16)</sup>

사람들이 오가는 육교 위의 여름 띄약별 아래 갑자기 봉변을 당한 현주는 남자의 억센 손길에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고 끌려간다.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만 누구나 겪고 싶지 않은 일을 여주인공 현주는 겪게 된다. 어쩌면 누군가 현주와 낯선 남자의 어색한 행동을 지켜보고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아무도 이들의 일에 관여하는 사람은 없다. 현주의 인생에서 낯선 남자가 타인이듯 길을 지나는 사람들 또한 그들에겐 타인이다.

현주는 그 사내가 자신에게 할 말이 있다고 하며 자신을 무작정 끌고 갔기 때문에 그의 목적지가 가까운 다방이나 최악의 경우 파출소쯤이려니 생각했다. 그런데 그가 현주를 끌고 회현동 골목 속에 새로 단장한지 오래되지 않은 듯한 이층건물 속으로 들어갔을 때야 비로소 그들의 종착지가 여관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현주는 이렇게 낯선 남자의 손에 팔목을 잡혀 끌려간 그날의 그 일을 단순 봉변으로 돌려버리고 싶어 한다.

하지만 그날 현주에게 일어난 일은 단순한 봉변이 아닌 인생 일대의 커다란 사건이었다. 그 일로 인해 현주는 매일 밤 밤거리를 방황한다. 자신도 알지 못했던 자신 안의 욕망에 떠밀려 낯선 남자들을 찾아다닌다. 하지만 작가는 그 날의 사건과 현주의 밤거리의 방황을 모두 현주의 탓으로 돌리려고 한다.

자기의 죄의식과 어떤 불량배의 무도한 욕구가 우연히 부딪쳐서 튀긴 불똥이었다고 생각하려고 했다. 그 사건 자체에 대해서는 그 여자가 자기에게 책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려 했다. …… 그 사건이 생긴 데 대하여 책임져야 할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불량배가 아니라 자기의 남편이어야 한다고 그 여자는 생각하였다. 자기는 자기의 더러움을 보았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모든 곳으로부터 도망하고 싶었다.<sup>17)</sup>

현주가 당한 여름 한낮의 봉변은 그녀의 책임이 아니라 그녀의 팔뚝이 몫

16) 김승옥, 『야행』, 『무진기행』, 문학동네, 2011, 345-346면.

17) 김승옥, 앞의 책, 349-350면.

시 매끄러워 충동을 참을 수 없어 자신의 손속에 넣고 만지고 싶었다고 말하는 그 낯선 남자의 책임임에도 불구하고 현주는 모든 것을 자신의 잘못으로 돌린다. 심지어 자신을 더럽다고 표현한다. 이러한 묘사는 강간당한 여자에 대한 작가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과 동시에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강간당한 여자의 잘못 인듯 피해자를 비난하는 사회의 시선이기도 하다.

강간의 희생자가 어쩔 수 없이 느끼게 되는 수치심은 내밀한 무엇인가가 짓밟혔다는 사실, 그 희생자가 더럽혀진 자기 자신에 대해 가지는 이미지, 그 사실이 타인의 눈에 드러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서 비롯된다. 또 그것은 접촉에 의한 오염, 타락이라는 해묵은 주제를 불러온다.<sup>18)</sup>

일반적인 폭력과 마찬가지로 성폭력도 일종의 폭력으로 육체적·심리적 상처가 치유되고 나면 폭력에 대한 흔적을 지우고 일상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도 유독 성폭력은 그러하지 못하다. 이는 성폭력이 단순히 피해 당사자만의 문제가 아닌 피해자와 관계하고 있는 남성들의 문제로까지 이어진다. 남성들은 자신과 친밀한 관계의 여성 즉 딸이나 아내가 성폭력을 당하면 곧 자신의 명예를 침범한 것으로 간주하고 성폭력 피해자에게는 분노를 표시하고 피해자 여성에게는 정절을 지키지 못하는데 대해 비난한다. 성폭력이 개인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범죄 즉 인권의 측면에서 재고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명예와 정절의 문제로 생각하는 사회에서 여성이 강간을 당했다는 것은 곧 순결해야할 자신의 몸이 더럽혀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주는 일을 마치고 집으로 향하지 않고 명동으로 향한다. 극장에서 마지막 영화를 보고 버스를 탄다. 버스 안에서 밤거리의 풍경들을 무심히 바라보던 현주는 ‘자기에게 말을 붙인 낯선 사내들을 따라가는 여자와 따라 가지 않는 여자들을 본다.’ 그 여자들이 대부분 여급이라는 것을 그녀들의 차림새로 짐작을 하며, 창을 통해 시야에 들어오는 풍경들에서 현주는 새로운 사실을 발견한다. ‘현주는 자기 자신을 더럽게 여기고 있는 여자들이 그렇게도 공공연하게 많다는 사실을 하나의 충격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다.’

이 대목에서 작가는 현주를 여급들과 등치시키며 ‘더럽다’는 표현을 사용한다. 작가는 현주의 밤거리의 방향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

---

18) 조르주 비가렐로, 『강간의 역사』, 당대, 2002, 6면.

그리고 그 여자는 세삼스럽게 깨달았다. 자기의 욕구는 반드시 사내들의 욕구를 과감히 실천할 때 함께 성취될 수 있음을. 그렇다, 사내가 그 여자의 내부에 공포와 혼란을 일으켜 놓지 않는다면 그 여자는 어떻게 자기의 더러움을 자백할 수 있을 것인가!<sup>19)</sup>

작가는 현주의 방향을 현주 자신의 성적 욕망에 의한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 하지만 그 욕망은 스스로에 의해 만족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내들에 의해 욕구가 달성될 수 있다고 말한다. 즉 강간당한 여자는 사내들에 의해서 자신의 더러운 몸을 구원 받을 수 있다고 말한다.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작가는 끊임없이 강간당한 여자를 더럽혀진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 그리고 그 구원은 스스로가 하는 것이 아닌 다른 남자들의 육체에 의해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밤거리에서 낯선 여자에게 다가가 말을 거는 남자들을 등장시킴으로써 남자들의 욕망 또한 이야기하고 있다. 하지만 작가에게 낯선 여자들에게로 다가가 자신의 욕망을 손 내미는 남자들의 행동에는 면죄부를 주는 반면 자신의 욕망에 이끌려 남자들을 따르는 여성들에게는 가혹하다. 이러한 묘사는 성적 욕망의 표현에 있어 남성과 여성을 이분화 시켜 자신의 성적 욕망을 표현하는 여자는 ‘노는 여자’ 혹은 ‘더러운 여자’가 되고 마는 것이다. 즉 현주는 자신의 삶에 예고 없이 뛰어난 남자에 의해 더럽혀지게 되고, 그는 스스로를 ‘더러운 여자’라고 말한다. 이는 외부로부터 던져진 오물에 의해 더럽혀진 장소를 의미하며, 작가는 그러한 여성에게 가혹하리만큼 큰 죄의식을 강요하고 있다.

### 3.3. 영원한 안식처

집은 인간에게 든든함을 주는 곳이다. 인간은 집에서 자유롭고 편안하게 움직일 수 있고 평화를 얻을 수 있다.<sup>20)</sup> 집이라는 공간은 인간에게 안식을 제공한다. 안식처로서의 집은 인간을 위협한 환경의 외부로부터 보호해주며 휴식을 준다. 인간에게 집이 육체의 안식을 준다면, 집에 있는 친근한 사람들과

19) 김승옥, 위의 책, 356면.

20) 오토 프리드리히 볼노, 이기숙 옮김, 『인간과 공간』, 예코리브로, 2011, 169면.

의 관계에서 영혼의 안식을 얻는다. 아이는 엄마에게서 안식을 얻고 남편은 아내에게서 안식을 얻는다.

인간은 매일 집과 세상을 분리하는 문을 나서고 전쟁터와 같은 외부환경과 만난다. 그리고 그곳에서 치열하게 생활을 하다 지친 몸과 마음을 이끌고 집으로 들어온다. 집이라는 안식처는 방전된 마음과 육체에 에너지를 공급한다. 김승옥의 소설 『서울의 달빛 O장』에 나오는 남자주인공에게 여자는 집과 같은 안식처로 묘사되고 있다.

아내와 결혼을 하면서 어머니와 형님, 가족들로부터 분리를 느낀 주인공은 아내를 새로운 안식처로 생각한다. 남자주인공은 부산에 있는 동창생 결혼식에 참석했다 서울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우연히 옆자리에 앉은 유명 탤런트 한영숙을 만난다. 처음에 그는 그녀가 누구인지는 몰랐지만 그녀의 예쁜 모습에 기분이 좋아져 그녀와 말할 기회만 엿본다. 그녀에게 인사하는 것을 구실로 해서 말을 붙인 남자는 그녀를 사랑하게 된다. 그녀의 눈빛에 이끌린 남자는 끈질긴 구애 끝에 그녀와의 결혼에 골인한다. 하지만 신혼 첫날 아내가 처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안 남자는 아내에 대한 환상이 깨지면서 아내에게 크게 실망한다. 결혼 전 가족이라는 이름의 안식처를 떠나 새로운 안식처에 정착하려고 한 그는 새롭게 발견한 안식처에서 약간의 위협을 느낀다.

호스티스 생활을 한 아내가 정갈한 그의 안식처가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전에는 매혹적이고 아름다웠던 것들이 갑자기 고깃덩이, 뺨이나 별레처럼 스멀대는 것, 삶의 역겨운 실체로 보이기 시작한다. 온전한 자신만의 안식처로 아내를 희망했던 남자는 결혼 전 못 남자들이 거쳐 간 아내의 육체를 성스러운 장소로 생각하지 않는다. 이제 그녀는 ‘숭고한 안식처’가 아닌 욕망을 숨긴 부패한 고깃덩이를 감춘 껍데기에 불과하다. 그리고 그 속에서 그녀를 거쳐 간 남자들이 쏟아놓은 남자의 땀새를 맡는다.

아직도 네 자궁 속에서 살아서 까불대고 있는 놈, 개 같은 욕망에 시대의 구실을 붙여 널 유혹한 놈. 이름을 대. 모두 이름을 대. 몇 놈이나? 모두 이름을 대. …… 네 자궁 속에 붙어서 아무한테나 문을 열어주는 도깨비한테 물려서 나도 미친 모양이다. 어서 이름만 대. …… 널 쫓아내고 싶어서가 아니다. 네 몸 속의 도깨비를 쫓아내고 싶어서다.<sup>21)</sup>

남자는 자신의 안식처에 이미 다른 침입자들이 점거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안 순간부터 그의 아내를 괴롭힌다. 아내는 결국 그의 괴롭힘을 견디지 못하고 집을 나가고 둘은 이혼한다. 많은 남자들이 첫날밤 여성의 순결을 의심하듯 남자 또한 아내의 순결을 의심한다. 여기서의 순결은 사랑이라는 허울로 포장되어 여자가 남자에게 첫날밤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된다. 하지만 여자는 남자에게 선물을 주지 못하고 여자의 육체는 아름답거나 성스러운 몸이 아닌 고깃덩이로 전락하고 만다. 이때 남자에게 여자의 정신은 무용한 것이 된다. 단지 남자는 여자의 육체만이 의미 있을 뿐이다. 여자가 이혼 후 아파트를 얻어 살겠다고 하자 남자는 또 한 번 자신만의 안식처이길 간절히 바랐던 여자가 다른 이들의 안식처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아내의 독립을 불안해한다.

여자에 대한 남자의 생각은 이혼 후 그의 친구들과 만난 술자리에서 나누는 대화에서도 잘 알 수 있다.

여배우란 특수한 직업이야. 그 육체 자체가 대중의 소유야. 여배우 자신이 그걸 잘 알고 있어. 대중의 소유물을 너 혼자 독점하려면 대중들이 그 여자에게 줄 수 있는 것 이상을 내가 줄 수 있어야 해. 대중이 부러워할 명예라든가 어마어마한 돈이라든가 그 여자가 무슨 짓을 하든지 얼마든지 용서할 수 있는 사랑이라든가. 비싼 창녀란 말이군.<sup>21)</sup>

여자 배우를 주체가 없는 대중의 소유물로 묘사하고 남자가 그것을 독점하려 한 것을 탓하는 대목이다. 남자 주인공은 여자를 대중의 소유가 아닌 자신이 안식할 거처로 생각했는데, 그 안식처를 침범 당했다는 생각에 더 크게 분노한다.

볼노는 『인간과 공간』에서 인간은 자신이 거주하는 집을 자신과 동일시하며 낯선 사람이 그의 의사를 무시하고 집의 영역으로 들어오면 마치 신체적으로 타격을 받은 듯한 느낌을 받는다고 했다.<sup>23)</sup>

---

21) 김승옥, 앞의 책, 385-386면.

22) 김승옥, 위의 책, 398면.

23) 오토 프리드리히 볼노, 앞의 책, 378면.

남자 주인공은 몇 십 년 동안 안식처로 생각하던 어머니를 떠나 새롭게 마련한 안식처에서 배신감과 모욕감, 분노를 느끼며 매일을 자신만을 위한 순결한 안식처가 되어 줄 것을 강요한다. 하지만 여자는 자신을 부정한 여자로 취급하는 남자에게 절망을 느끼고 남자 곁을 떠나고, 안식처를 상실한 남자는 자신의 몸과 마음을 의탁할 곳을 찾아 밤거리를 헤맨다.

그리하여 나는 낯선 지난 삼 개월 동안 육십 명의 여자와 관계했다. 세면(洗面)이 일과의 하나이듯 성교 역시 일과의 하나였다. 매 번 다른 여자라는 사실은 매일 낯선 지방으로 여행하는 것과 흡사했다. 빨리 통과해 버리고 싶은 여자가 있었고 며칠이고 머물고 싶은 여자가 있었다. 그렇다 그것은 여행이었다. 가는 곳마다 고향과 비교해보듯 여자마다 아내와 비교해 보곤 했다. 그러나 모두가 고향과 닮았으나 아무 데도 고향은 아니듯 모두 아내를 닮았으나 아내는 아니었다.<sup>24)</sup>

우리가 느끼는 장소는 그 크기가 다양하다. 작게는 마음에 드는 작은 안락 의자가 장소 일 수도 있고, 크게는 지구 전체, 천문학자에게 있어서는 우주 전체가 되기도 한다. 인간에게 고향은 크지도 작지도 않은 중간 크기의 장소이다. 우리가 고향에 느끼는 애착은 그 어느 것보다 크다. 고향에 대한 애착은 강렬한 것이며, 또한 죽을 때까지 잊혀 지지 않는 것이다. 주인공은 자신의 옛 아내를 고향과 비교하며 자신의 아내와 같은 안식처를 찾아 헤메지만 결국 안식처를 찾지 못하고 포기하고 만다.

주인공은 자신과 아내가 실제 거주했던 아파트를 팔아 마련한 값비싼 외제 자동차를 타고 이혼 한 아내를 만나러 간다. 그는 여자에게 시험 삼아 이제부터 새로 시작해볼 것을 제안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그것은 강렬한 열망이라기보다는 그냥 안식처를 잃은 남자가 쫓겨난 집 주위를 서성거리듯 그녀 곁을 기웃 거릴 뿐이다.

나는 예금 통장과 그 여자의 이름이 새겨진 도장을 건네줬다.  
“이게 뭐예요?”

---

24) 김승옥, 앞의 책, 402면.

“아파트를 팔았어. 우리 둘이 나눠 갖는 거야. 난 이 차를 샀어. 내가 조금 많이가졌지만 받아줘.”

.....

“위자료군요?”

아냐, 위자료가 아냐. 너한테 위자료 같은 걸 받을 권리는 없어. 이건 유혹하기 위한 선물이야. 이제부터 다시 시작해보자고 유혹하는 뇌물이야. 나는 그렇게 말하고 싶었으나 그 말들은 지렁이뱀처럼 덩어리로 엉켜서 가슴 속을 굴러다닐 뿐이었다.

.....

“저어 ..... 나 ..... 영숙이 아파트로 가끔 놀러가도 되겠어?”<sup>25)</sup>

영원한 안식처가 되어줄 거라 믿었던 여자를 잃고 다시 그 여자에게 다가갈 바깥세상에서 지치고 힘들 때 가끔 들러 쉴 수 있는 영혼과 육체의 쉼터가 되어줄 것을 제안하지만 여자에게 보기 좋게 거절당한 남자는 찢겨져 바닥에 나뒹구는 통장의 종잇조각을 보며 메별(袂別)을 처음으로 실감하며 그의 증오와 고통도 찢겨 바닥에 함께 나뒹굴고 있음을 느낀다. 이로써 주인공은 그 동안 그가 찾아 헤맨 장소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완전한 장소 상실을 경험하게 된다.

#### 4. 나오는 말

김승옥의 소설에 등장하는 여성 인물들 중 많은 여성들이 성적 대상으로 혹은 성적 타자로 등장한다. 영혼과 육체의 합일을 경험하게 되는 성적 관계에 있어 주체가 되지 못하고 타자로 자리매김 되는 여성들은 일상생활에 있어서도 주체가 아닌 타자의 역할을 맡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무진기행』과 『야행』, 『서울의 달빛 O장』을 통해 김승옥 소설에 나타나는 여성에 대한 인식을 장소의 개념을 통해 살펴보았다. 먼저 『무진기행』에서 인숙은 무진에서의 자신의 생활에 만족하지 못하고 희중에게 서

---

25) 김승옥, 위의 책, 409면.

을로 데려가 줄 것을 재차 부탁한다. 인숙은 또한 서울이라는 전쟁터에서 잠시 피신해온 희중과 관계를 맺고 잠시 외유 중 만난 인연으로 그려짐으로써 남자의 삶의 도피처로 그려지고 있다.

『야행』 역시 여름 한낮에 낫선 남자로부터 강간을 당한 현주는 그 이후 자신의 욕망을 발견하고 밤거리를 헤매는 성적 주체로 그려지지만, 그 이면에는 자신의 부정한 몸을 정화시켜줄 남자를 찾아나서는 하나의 정화 의식을 치르는 중이다. 자신의 잘못이 아님에도 자신의 몸을 끊임없이 오염된 장소로 생각하는 현주의 내면은 그 시대 남성들의 ‘강간당한 여자’에 대한 왜곡된 시선을 여실히 드러내 보이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서울의 달빛 O장』의 남자 주인공은 친구의 결혼식에 다녀오는 비행기 안에서 우연히 만난 여자에게 반해 결혼에까지 이른다. 하지만 그녀가 처녀가 아님을 알고는 몹시 괴로워한다. 그가 괴로워하는 이유는 온전히 자신의 소유로 여겼던 여자의 자궁에 다른 남자들이 들락거렸다는 사실 때문이다. 이것은 마치 자신만의 안식처를 다른 사람들에게 침범 당한 것 같은 느낌이다. 그래서 남자는 분노하고 예전의 안식처와 꼭 닮은 안식처를 찾아 나서지만 그 어디에서도 찾지 못한다. 결국 남자는 다시 옛 여자를 찾아가 전쟁터인 세상에서 활귀고 상처를 입었을 때 잠시 쉴 수 있는 안식처가 되어주길 바라지만 여자에게 보기 좋게 거절당하고 남자는 예전에 자신이 여자에게 가졌던 증오와 분노와 함께 완전히 그녀를 잃었음을 알고 영원한 장소 상실감을 느낀다.

김승옥 소설에 등장하는 여성들은 남성에게 의해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게 된다. 그것은 여성이 지금까지 남성들의 종속물이자 영원한 타자로 존재해왔다는 역사적 사실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사실에 기인한 설정이라 할 수 있다. 대중이 읽는 소설 작품은 시대적 현실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그리고 소설은 시대적 현실을 그림과 동시에 그것에서 그려진 가상이 그것을 읽는 독자들에게 의해 실체가 되고 현실이 된다. 그래서 이는 김승옥 개인의 문제임과 동시에 시대를 함께하는 혹은 그의 작품을 읽는 후세대 모두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 〈참고 문헌〉

### 〈기본 자료〉

- 김승옥, 『무진기행』, 『무진기행』, 문학동네, 2012.  
『야행』, 『무진기행』, 문학동네, 2012.  
『서울의 달빛 O장』, 『무진기행』, 문학동네, 2012.

### 〈참고 도서〉

- 이상경, 『한국근대여성문학사론』, 소명출판, 2002.  
에드워드 펠프, 김덕현·김현주·심승희 역, 『장소와 장소 상실』, 논형, 2005.  
오토 프리드리히, 이기숙 역, 『인간과 공간』, 에코 리브로, 2011.  
이-푸 투안, 구동희·심승희 역, 『공간과 장소』, 대운, 2011.  
조르주 비가렐로, 『강간의 역사』, 당대, 2002

### 〈참고 논문〉

- 김경수, 『2005년의 무진기행』, 『작가세계』, 2005년 여름호, 세계사, 2005.  
곽상순, 『김승옥 단편소설의 여성인물 연구』, 『한국문학 이론과 비평』49집,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10.  
\_\_\_\_\_, 『김승옥의 『무진기행』 연구』, 『국제어문』 44집, 국제어문학회, 2008.  
김복순, 『1960년대 소설의 연애전유 양상과 젠더』, 『대중서사연구』19호, 대중서사학회, 2008.  
김영찬, 『열등의식의 문학적 탐구』, 『한국근대문학연구』21호, 한국근대문학회, 2010.  
유임하, 『단편 일상성과 해방 의지』, 『겨레어문학』33집, 겨레어문학회, 2004.  
정미숙, 『에로티시즘과 실존의 변증법-김승옥론』, 부산외국어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논집 16집, 1996.  
차미령, 『김승옥 소설의 탈식민지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논문, 2002.

## 【국문초록】

장소개념을 연구한 몇몇 학자들은 인간이 경험하는 심오하고도 복잡한 측면을 장소라고 표현하고 있으며, 인간의 경험에 따라 장소는 개개인마다 다르게 인식되며 그 장소에 정체성, 즉 장소감이 부여된다고 말한다. 또한 우리의 몸을 공간을 인식하는 도구로 보고, 몸을 공간을 체험하는 주체의 조직에 속한다고 말한다. 다른 한편으로 몸은 그 자체로 공간, 즉 개인 공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몸 자체가 우리를 둘러싼 공간의 일부로 보았다.

김승옥의 단편 소설 『무진기행』, 『야행(夜行)』, 『서울의 달빛 0장』의 분석을 통해 작품 속에서 여성이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지를 장소개념을 통해 살펴보았다. 세 작품에서는 각각 여성이 ‘삶의 도피처’와 ‘오염된 장소’ 그리고 남성이 갈망하는 ‘영원한 안식처’로 표현되고 있는데, 이는 작가 김승옥의 개인적인 생각을 넘어 그 시대 사회의 전반적인 여성에 대한 인식이라고 할 수 있다. 대중에게 읽히는 소설 작품은 역사적 사실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그려진 소설 속 이야기들은 새로운 실체가 되고 현실이 되어 독자 대중들의 의식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여성을 주체가 아닌 타자로, 주체인 남성에게 의해 그려진 여성에 대한 인식을 그리고 있는 작품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논의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핵심어 : 장소, 장소감, 여성, 주체, 타자

【Abstracts】

## The study of women's recognition that was shown in Kim Seung-Ok's novel

— Revolved around the phenomenological concept of place —

Ryu Jin-A

Some of the scholars who have studied the concept of place formulate the profound and complex side that a person have experienced as a place, they also say that the place is recognized differently for each individual depending on people's experience and the identity, namely the sense place, is granted to that place. In addition, they add that our body is an object which recognizes the space, in other words, the body belongs to the main organization which experiences the space. On the other hand, the body itself is a space, that is to say the personal space, so the human body itself is seen as part of the space that surrounds us.

Through the analysis from Kim Seung-Ok's short stories : <Journey to Mujin>, <Night Travel> and <Moonlight of Seoul Act 0>, I examined with the concept of place how women were recognized in the novelettes. In the three literatures, each woman was expressed as a 'life refuge', 'infested place' and as the 'eternal resting place' which man lust for, and this is the recognition for women of the overall society of that period, which is beyond Kim Seung-Ok's personal thought.

The novels that the general public reads do not largely deviate from the

historical facts. The stories of the novels described this way become the new truth and reality and influence the consciousness of the public readers. Therefore, the novel describing women's recognition, depicted by the man who is the subject, with the woman as the other and not as the subject, must continuously be subject of the debate in the future.

Key words : place, sens place, women, subject, the other

이 논문은 2014년 7월 10일에 투고되었으며, 2014년 8월 1일에 심사 완료되어 2014년 8월 11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